

융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체육교과의 시도*

최의창**

<요약>

창의성과 인성이 통합된 융복합적 인재양성은 체육교과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 체성을 주로 담당하는 체육은 지성(창의성)과 덕성(인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적 교육을 이루는 교과목표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융복합 인재양성은 체육교과에서 “전인교육”(whole person education)을 실현해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육교과에서 융복합 인재(融複合 人才)란 전인적 인재(全人的 人才) 즉, 지덕체가 균형있게 발달된 전인과 동일특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에서의 융복합 인재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전인을 말하며,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체육교과가 할 일은 창의인성교육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교과에서는 아직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해온 감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과에서의 융복합적 인재 육성이란 주제를 체육교과에서 창의인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교과교육에서 창의인성 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교과구분과과적 융합과 단일교과중심적 융합)에 대해서 알아본다.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는 교육철학적 토대인 “실천전통교육관”과 교과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살펴본다. 몇 가지 교육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단일교과내에서 창의인성을 실제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더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교과에서 개발된 한 가지 수업모형의 개념과 실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핵심어】 융복합적 수업, 하나로 수업, 실천전통적 관점, 창의성, 인성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3. 12. 6)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ecchoi67@snu.ac.kr)

1. 문제의 재확인: 융복합적 인재를 위한 체육교육?

“융복합적 인재”란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인가? 한편으로 다소 좁게 해석한다면, “창의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기능을 골고루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다재다능, 혹은 박학다식한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약간 폭넓게 해석한다면, 사람을 이루는 “지정의”(知情意)의 전 측면, 또는 “지덕체”(智德體)의 전 측면이 편중됨 없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룬 사람을 일컫는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과 같이 재덕겸비한 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융복합적 인재에 대한 논의는, 내가 보기에, 전자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연구발표회에 “창의적, 융복합적 인재”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창의성을 보다 주목하는 방식으로 융복합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최근 만연하는 STEAM 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고황경, 김재원, 2013; 이시예, 이형철, 2013).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망라하는 지식을 골고루 지니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창의적 인재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적 의미의 융복합을 “인사자 융복합”(人社自 融複合), 후자적 의미의 융복합을 “지덕체 융복합”(智德體 融複合)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나는 융복합적 인재는 광의적으로 후자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더욱 더 지덕체를 하나로 갖춘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융복합적 인재를 풀이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적인 (혹은 기능적인, 또는 최근 유행하는 표현으로 역량 뛰어난) 인재, 특히 다양한 지적 영역에 두루 통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것은 최고로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머리는 물론, 몸과 마음까지 모두 뛰어난 상태로 만드는 종합적 노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융복합이란 지덕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야 하며, 국어, 수학, 과학지식을 많이 하나로 가지고 있는 상태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물론, 지덕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지식영역들을 어느 정도 하나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미 포함한 의미다. 나는 본 연구에서 융복합의 의미를 다양한 지식들의 융복합, 즉 인사자 융복합이 아니라 지성과 덕성과 체성의 차원들이 균형있게 자리잡은 상태의 융복합, 즉 지덕체 융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겠다(그동안 강조해온 전인교육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대표적 융복합 교육이다). 이런 선택은 특히, 체육교과에서는 더욱 필요한 그러한 선택이다. 신체적 기능을 중점 교과내용으로 하고 있는 체육교과에서는 지성과 인성을 체성과 통합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능들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은 체육“교육”의 할 바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체육교과에서 융복합인재 양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창의인성교육” 논의가 체육교과영역에서는 바로 융복합 인재육성이라는 논의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체성(기능과 체력)을 중심으로 교과를 지도하는 체육에 창의성(지성)과 인성(덕성)을 함께 덧붙이라는 주문이고, 이것이 바로 체육교과에서 지향하는 지덕체가 하나로 된 융복합 체육교육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체육교과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은 체육교과에서 지향하는 체지덕 조화를 추구하는 전인교육에 다름아니다.

체성을 주로 담당하는 체육은 지성(창의성)과 덕성(인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적 교육을 이루는 교과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덕체 융복합 인재양성이라는 맥락에서는 체육교과에서 “전인교육”(whole person education)을 실현해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체육교과에서 융복합 인재(融複合 人才)란 전인적 인재(全人的 人才) 즉, 전인과 동일인, 혹은 동일특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에서의 융복합 인재는 통상적 의미에서의 전인을 말하며, 융복합 인재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체육교과가 할 일은 창의인성교육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교과에서는 아직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해온 감이 적지 않다. 나는 체육교과에서의 융복합적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를 체육교과에서 창의인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교과교육에서 창의인성 융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교과구분과과적 융합과 단일교과중심적 융합)에 대해서 알아본다(2절). 후자의 관점을 지지하는 교육철학적 토대인 “실천전통교육관”과 교과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살펴본다(3절). 몇 가지 교육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단일교과내에서 창의인성을 실제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더한다(4절). 마지막으로 체육교과에서 개발된 한 가지 수업모형의 개념과 실천 사례를 소개한다(5절). 아쉽게도, 이론적 명료화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실천적 노력의 사례는 매우 긍정적이다.

2. 융복합교육으로서의 창의인성교육

최근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기 위한 전국적이고 전교사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2009 및 2011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다. 놀랍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의 수업개선 노력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놀랍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와중에 정신없

이 연구하고 지도안을 만들고 수업시연을 하는 것이 안쓰럽다. 물론 여기저기 찢러보고 이리저리 훑어보면, 무엇인가 걸기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과 재원과 시간이 관여되고 소요되고 있다(서강대학교 창의인성교육 수도권거점센터, 2012).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은데 또 요런 것 같고, 무엇이 뭐라고 꼭 짚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창의인성교육의 현황인 것이다. 창의성은 무엇이고, 인성은 무엇이며, 또 창의인성의 교육은 무엇인가? 여러 개념과 주장이 있지만 분명하지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김성준 등, 2010; 최인수, 2011). 아무튼, 창의인성교육의 정체는 그다지 명료하지 않으며, 특히 각 교과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수업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머리가 멍멍하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창의인성 교육에서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에 근거하여 이 둘을 한꺼번에 교육시키는 방안에 더욱 관심이 간다. 작금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고민과 방법찾기는 창의성은 창의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각각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교육개선과 수업개선은 지금껏 무엇을 해왔던 것인가? 각 교과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추구하지 않았단 말인가? 반대로, 만약 추구해왔다면 지금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강조는 도대체 무슨 해프닝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창의성과 인성인가?

지금의 창의인성교육이 이전과는 다른 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창의성과 인성을 하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전까지는 이 둘을 각각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회에 가르치는 것으로 당연히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 최고의 인간자질을 한꺼번에 같이 강조하면서 하나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창의성과 인성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번 교육개선 노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 창의성과 인성의 융합, 그리고 그것의 융합적 지도.

물론 이것은 순전히 나만의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자질로서 창의성과 인성은 인류가 문명을 이루어낸 이래로 언제나 가장 각광받던 두 핵심자질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재능과 덕성, 지와 덕의 두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훨훨 사회생활과 개인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희망했다. 한국교육은 21세기 세계사회의 리더로서 훨훨 날아오르기 위한 두 날개로서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개념을 선택한 것이다. 이 둘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움직여야만 순조로운 비행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창의인성의 융합과 함께 관심이 가는 것은 교과간의 융합이다. 기존 교과들간의 소통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논리와 방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다. 이것은 창

의인성의 융합이라는 아이디어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창의인성을 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들을 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융합적 목표(창의인성)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내용(교과)을 융합적 방법(수업)으로 가르쳐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과융합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과통합” 혹은 “통합교과”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고민되고 실천되어왔다(유광찬, 2009; Forgarty, 1991). 창의인성의 융합적 교육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창의인성교육의 맥락에 있어서 융합에 대한 생각은 <교과들의 융합>과 <창의인성의 융합>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교과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인성교육의 융합>에 관한 생각은 첫째, 교과별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각각 하는 것; 둘째, 교과별로 창의인성 교육을 융합적으로 하는 것; 셋째, 교과간 융합을 하지만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을 따로 하는 것; 그리고 넷째, 교과간 융합과 함께 창의인성 교육을 융합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네 번째 형태의 융합은 교과융합과 창의인성융합, 두 차원의 융합을 한 번에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의 융합이다. 이러한 융합은 사실, 화이트헤드가 말한바, “삶” 속에서 창의인성이 길러지도록 하라는 주문과 같다. 그리고 이 주문은 <교과를 삶과 같이 만들어야>는 말에 다름아니다.

그리하여 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첫째, 기존교과와는 다른 융합교과를 따로 만들 것; 둘째, 기존 교과들을 관통하는 융합주제를 따로 구성할 것; 셋째, 기존 교과를 가르치면서 그 교과의 성격에 충실한 방식으로 융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길을 찾을 것 등의 세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시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들을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론만을 의지하는 것도, 현장만을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현실적이며 철학에 근거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분명한 두 가지 선택은 둘째와 셋째 것이다. 둘째 것을 <교과구분 파괴적 융합>이라 부를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모은 것이다. 주제중심적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래전 지식의 구조에 근거하여 부르너와 그 일행이 만든 <Man: A course of study>(Bruner, 1965)라는 통합교과지도서가 있다. 둘째는 <단일교과중심적 융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운데 놓고 각각의 지식의 영역들로부터 이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교과영역 내에서 그 교과의 내용이 다양하게 표현된 내용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이다. 교과중심적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으로서 <하나로 수업>이라는 실례를 이하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단일교과중심적 융합이란 “한 교과에서 기타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형식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 + (체육에 관한) 국어, 수학, 과

학, 미술, 음악 등을 함께 학습하고 체험한다. 농구를 배우되 게임과 선수에 관한 시와 소설, 시합과 연관된 통계와 확률, 슛과 관련한 운동의 법칙, 경기를 그린 회화와 영화 등을 학습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교과와 특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타 교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고의 양식이나 지식의 구조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현실과 현장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관점은 교육철학적으로 Hirst(1993), 홍은숙(2007), 유재봉(2002) 등의 교육철학자들이 최근 들어 주장하는 “실천전통교육관”(education as an initiation into a practice)과 합치한다. 실천전통에의 입문이란, 명제의 묶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지식의 형식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간활동의 모음을 가르침으로써 실천전통의 다양한 특징들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전통으로서 교과에 입문시킴으로써, 그 교과에 반영된 실천전통의 내적 특징들을 습득한다. 실천전통의 올바른 습득은 그 교과에서 강조하는 창의성과 인성의 함양까지 의미하며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리하여 단일교과 중심적 융합은 (삶 속에서 창의인성이 길러지도록) 교과를 삶과 같이 만드는 한 가지 유용한 접근방식이다. 하나로 수업은 이러한 융합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한 가지 구체적인 수업구성 및 진행 모형이다.

3. 창의인성교육의 교육철학적 기반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보자. 창의성은 무엇인가? 창의성의 개념은 너무도 다양해서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이다(최인수, 2011).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교육이란 “지식을 활용하는 예술에 가까운 재능을 전수하는 일”(Whitehead, 1929)이라고 했다. 이 개념에 근거하여 말하면, 창의성이란 <지식을 활용하는 예술에 가까운 재능 the art of utilization of knowledge>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을 활용하는 재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중지능론을 주장하는 Gardner(2006)에 의하면, 그 재능은 최소한 7가지(언어적, 논리수학적, 신체운동적, 음악적, 공간적, 인간친화적, 자기성찰적 지능)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재능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영역도 최소한 7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서 이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적절히 예술처럼 발휘하는 재능이 바로 창의성이다. 교육이란 창의성을 기르는 일과 다르지 않다(따라서 창의성 교육이란 동어반복이다).

인성이란 또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성이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 사회생활을 이루어나가는 데에 요청되는 필수규범이라고 할 수 있

다. 교육철학자 신차균(2005)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품성을 형성하는 교육이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품성”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자연이나 사회를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힘을 얻기 위한 도구적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별하는 내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규율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다(강선보 등, 2008).

창의성과 인성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교과교육에서는 교과를 학습할 때에 이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전수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실, 앞에서 말했듯, 각 교과에 이 두 가지 차원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가장 뚜렷하게 강조하는 교육관은 교육철학자 폴 허스트와 홍은숙 등이 주장하는 “실천전통 교육관”이다. 실천전통 교육관은 교육을 “실천전통에의 입문”이라고 보고, 각 교과를 하나의 실천전통으로 간주한다. 이 실천전통은 단순히 지식 혹은 기능의 체계적 집합체를 훨씬 더 넘어선다. 실천전통은 그 안에 지식체, 규범체계, 공동의 가치, 기능(철학자 알라스디어 매킨타이어와 홍은숙 등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활동,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탁월성의 기준, 실천전통의 내적 가치, 덕, 규칙에 대한 복종, 역사적 전통의 발전, 구성원의 성장) 등등이 모두 하나로 들어있는 종합세트와 같은 존재다. 교과를 배운다는 것은 실천전통 속에 들어있는 총체적 측면들을 모두 내면화한다는 말이다.

실천전통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을 가리킨다. 실천전통은 그 활동형식에 적합하고 또한 그 의미를 부분적으로 규정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가지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형식의 내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 결과 탁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능력과 관련된 활동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인간의 사고가 체계적으로 확장된다. 실천전통을 이렇게 이해할 때, 탁탁토 혹은 축구공 던지기는 실천전통이 아니지만, 체스나 축구는 실천전통의 예가 될 수 있다. 벽돌쌓기는 실천전통이 아니지만, 건축은 실천전통이며, 무심기는 실천전통이 아니지만, 농경은 실천전통이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의 탐구, 역사학자의 작업, 미술이나 음악 등도 모두 실천전통이 될 수 있다. (MacIntyre, 1984, pp. 187-188)

어떤 교과를 통해서 창의성과 인성을 배운다는 말은, 따라서, 실천전통으로서 그 교과에 반영되어있는 다양한 인지적, 도덕적 기준과 내용을 습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가장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한다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한다는 말은 어떤 교과의 관점에서 (자신, 타인, 교과, 세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실천전통 교육관에 따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과 인성의 교육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은 교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성의 내용과 인성의 내용은 실천전통으로서 각 교과마다 다르다. 허스트는 기본적인 실천전통들, 광범위한 선택적 실천전통들, 이차적인 실천전통들로 구분하고 있다¹⁾. 각 교과는 이러한 실천전통들로 구성되어 있고, 창의인성이 강조되는 교과교육은 실천전통의 구성요소들을 충실하고도 적절히 학습하는 (내면화하는, 입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유재봉, 2002).

물론, 현재의 교과구분은 주지주의적 자유교육관(지식의 형식)과 공리주의적 실용교육관(경험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실천전통 교육관에 따른 교과의 구분과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해도,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띠고 있으며 기존의 교과구분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각 교과에서 요청하는 탁월성의 기준과 내적 가치들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창의성과 인성의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만이 실천전통에 올바르게 입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은 교육심리학과 도덕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의성과 인성은 문제해결력, 인내심 등 세부 구성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창의성과 인성은 과정이나 형식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창의성과 인성은 “내용을 담은 형식”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각 실천전통에 특별한 창의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창의인성교육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실천전통에 있어서는 이 두 차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거나 발휘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인성은 함께 가르쳐야만 한다. 아니, 창의성과 인성은 함께 가르쳐질 수밖에 없다. 창의성과 인성은 모든 인간활동에 동시에 존재하는 두 측면이다. 사람이 어떤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창의적 차원과 인성적 차원이 관여된다. 인지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이 관여되는 것이다. 다만, 외형적으로 어느 한 차원만 드러나거나 보여지거나 감지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른 차원은 부각되지 못하고 배경속으로 감추어진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활동이든지 창의적 차원과 인성적 차원이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찬찬히 들추어보면 인지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이 관여되어 있음을 발견해낼 수 있다. 내가 어떤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도 나의 인성적 수준이 묻어나며,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에서도 창의적 수준이 반영된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철학자 오우크쇼트에 의하면, 한 사람

1) 허스트는 기본적인 실천전통에 건강 안정 등 물리적 세계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된 것, 읽기 쓰기 산수 등을 포함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 개인과 가정생활의 관계성과 관련된 것, 지역 국가적 관계와 제도 경제 법 등과 관련된 것, 문학 음악 춤 미술 건축 등의 예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것, 종교적 신념과 근본적 가치에 관련된 것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의 “스타일”이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드러나는 이 두 차원의 복합작용을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우리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보다 제대로 이해하게 해준다. 창의인성과 관련해서 교과를 융합해서 가르치라는 주문이 있다. 주제중심적 교과구성이나 팀티칭식 수업운영을 하라는 주문이 온다. 하지만, 학교의 지도(地圖)에는 지역이 교과별로 구획지어져 있다. 교사는 자기 교과영역에 전문가다. 주제중심으로 재구성되지 못해도, 팀티칭식으로 진행하지 못해도 여전히 교과를 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필요하다. 실천전통 교육관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하나의 실천전통 안에서 각 교과의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융합이 가능하다. 각 교과의 핵심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낸 다양한 모습들을 체험하고 발견한다. 예를 들어, 체육수업의 핵심내용인 스포츠 활동을 국어(영어),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적 형식으로 다루어진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배움으로써, 실천전통으로서의 스포츠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입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창의인성이 강조된 체육수업이란 스포츠활동을 기능적으로 숙달하는 것과 함께, 스포츠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스포츠에 대하여 새롭고 올바른 태도와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교과융합과 창의인성융합

현재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접근은 기존 교과교육의 방향과 연계 없이 일반적인 창의인성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내달려온 감이 있다. 2009(2011)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점이 시정될 것 같아 보이지만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사실, 교과교육의 실현이 우선이고, 창의인성교육은 교과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주객의 전도가 발생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교과교육이 우선인가? 창의인성교육이 우선인가? 이 둘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교과교육은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온 각 교과의 지식체계, 사고양식, 그리고 행동방식속으로 학생들을 입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를 들어, 과학적 소양의 함양, 문학적 안목의 향상, 수학적 사고의 형성 등으로서 본질적으로 볼 때, 전문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예비단계의 과학인, 문학인, 수학인이 되는 것). 이것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교육철학적 관점으로 “실천전통에의 입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교과, 즉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지식의 구조나 지식의 형식이 아니라, 실천전통으로서 간주한다. 지식의 구조는 인지적인 것이 주된 내용이나, 실천전통은 하나의 복합적 총체로서 기능적, 인지적, 도덕적 차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종합세트로 되어있다.

교과교육은 학생을 이러한 다양한 총체로서의 실천전통에 입문시키는 것이다(최의창, 2010; 홍은숙, 2007).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천전통의 구성요소들을 자신(지덕체)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실천전통에 입문되면, 즉 내면화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과에 들어 있는 내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들을 습득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성해놓은 실천전통은 학교에서의 교과구분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교과명칭과 실천전통의 이름이 상호일치하는 경우가 여럿이다). 마찬가지로, 실천전통의 구성요소들은 창의성과 인성의 요소들과 유사하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낱알의 조각들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내면화시킴으로써 각 실천전통(각 교과)들에서 요청하는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마음상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올바르게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인성교육은 교과교육과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의 맥락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은, 간단히 말하여, 각 실천전통의 맥락에서 (자신과 교과와 사람과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실천전통교육관에서는 교과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창의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창의인성을 교과와 독립된 개념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적절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못하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창의인성을 교과와 융해된 개념으로 생각하며 가르치려는 노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하며 효과적일 수 있다(일명 practice-specific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PSCCE 실천전통중심적 창의인성교육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천전통에의 올바른 입문을 가능토록 하는 교육과정구성은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하나의 우물을 파지만, 여러 수맥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단일교과중심적 통합적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단일교과중심적 통합수업은 하나의 교과(기존 또는 신설)를 중심으로 타 표현양식(교과특징)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의 통합적 내용구성이다. 예를 들어, 수학의 주된 교과내용(주표현양식)을 중심으로 국어,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역사, 생활 등 학교에서 인정받은 여타표현양식들에 의해서 드러난 실천전통으로서의 수학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학습한다. 이를 통해서 실천전통의 구성요소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를 제대로 이루어냄으로써 입문할 수 있게 된다. 입문과 내면화의 수준이 그 실천전통에서 요청하는 창의인성의 수준이 되는 것이다.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되, 다른 표현양식의 학습을 통해서 교과의 다양성도 체험함으로써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함께 강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Young(1998)이 지식기반사회의 교과 교사들이 지녀야 할 전문성으로서 언급한 “연계적

전문화”(connective specialization, 連繫的 專門化, 다른 교과, 분야와의 통합적 연계강도를 높인 채로 교과전문성을 강화시켜나가는 능력이나 방안)을 통해서 교과의 독자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각의 교과를 독립적으로 가르치나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점에서 “따로 또 같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단일교과 내에서 교과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며, 교과중심적 교육을 펼치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성과 인성은 하나로 가르쳐져야만 한다는 두 번째 주장은 어떠한가? 창의성과 인성은 따로따로라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가? 창의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현재 개발되고 강조되는 접근법들은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가? 따로따로라도 가르칠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함께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²⁾

교과교육은 창의인성교육에 개념적으로 선행한다. 즉, 교과교육에 대한 고려가 먼저이고 창의인성의 함양은 교과교육의 범주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각 교과에서 요청하는 교육적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창의인성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교과교육의 장면 내에서 창의인성의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반적 차원의 창의인성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외활동을 통해서 언급되어진다. 수학, 과학, 국어, 체육, 역사, 미술, 음악 등의 교과목에서는 그것이 추구하는 교과의 목적 안에서 각각 수학적, 과학적, 국어적, 체육적, 역사적, 미술적, 음악적 창의성과 그것에 필요한 인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은 서로 구분되는 차원의 소질로 인정되고 있다(서강대학교 창의인성교육수도권거점센터, 2012). 재와 덕, 지와 덕 등으로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의 자질 영역이다. 그런데 이 둘은 사람 속에서 하나로 들어있고, 발휘될 때에도 하나로 실행된다. 한 사람 안에 지와 덕이 모두 들어있고, 어떤 생각과 행동은 그것이 실행되는 수준과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창의적이고 인성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과 인성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앞뒤로 붙어져서 실행되는, 반영되는, 혹은 드러나는 특성들이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은 새로움의 수준과 올바른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창의성과 인성은 동시에 가르쳐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길러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 교과에서 일관성있게 가르쳐나가는 것이 큰 작업이다. 이 두 가지

2) 창의성과 인성을 통합적으로 관련짓는 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창의/인성> 창의성과 인성을 서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그냥 한 자리에서 같이만 다룰 뿐이다(병합). <창의-인성> 창의성과 인성이 서로 독립적이나 기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연합). <창의·인성> 창의성과 인성이 개념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 현실적 관련짓기를 도모한다(결합). <창의인성> 창의성과 인성이 개념적으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관계짓기의 방법을 도모한다(융합).

를 따로따로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이전까지의 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지난 수십년의 교육과정 개정, 그 어느 때에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드시, 하나로 묶어서 가르쳐야한다. (사실, 현장 실재에서는 언제나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야만 이번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새로운 교육정책으로서 <창의인성교육>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다.

단일교과 내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하나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교과를 생각할 때에 “주차원과 부차원”(primary & secondary dimensions)의 구분이 필요하다. 교육학자 Eisner(1998)에 따르면, 인간의 체험은 다양한 표현양식(forms of representation)으로 드러난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험의 양식들은 주차원과 부차원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은 주된 표현양식과 부된 표현양식의 힘을 빌어 표현된다. 주차원은 한 가지 경험의 양식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주된 표현양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학은 숫자, 문학은 글자, 음악은 소리, 미술은 색과 형상, 체육은 신체활동 등등이다. 부차원은 그 경험의 양식이 인간의 다양한 현실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면서 주된 표현양식 이외에 다른 양식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이 소리와 색채, 수학이 글자와 그림, 음악이 색채와 울동 등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주차원과 부차원은 성격이 각각 학문적이거나 서사적이다(심리학자 Bruner(1996)에 따르면, paradigmatic이거나 narrative이다. 교육학자 van Mannen(2002)에 따르면, gnostic이거나 pathic이다.)

사람들은 경험의 양식들(의 주차원과 부차원들)을 체험하고 인지하고 생산해냄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다채롭게 가꾸어나간다. 창의인성은 내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 중 두 가지에 해당한다. 창의인성은 교과로 체험되는 각 경험의 양식(실천전통)들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각 실천전통에 입문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전통에서 요구되는 창의인성을 습득, 함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상적인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는 각 실천전통에 보다 더 제한된 내용과 방식을 띠고 있다. 이것을 주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상적인 창의인성을 위해서는 부차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³⁾

3) 기호학 연구와 문해력 교육 분야에서는 이같은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복합양상성, 다중양상성(multimodality)이라고 부르며, 그러한 양식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다중문해력(multiliteracy)라고 부른다(Albers & Harste, 2007; Cowan & Albers, 2006; Siegel, 2006). 부차원은 신체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여러 표현적 양상들(representational modes)로 드러난 것이다. 스포츠활동을 중심으로 그것이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된 것을 학습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신체적 문해력과 함께 신체적 문해력을 중심으로 다중문해력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 점에서 단일교과를 중심으로 창의인성의 융합과 지덕체가 융합된 전인교육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체육교육에서의 시도: 하나로 수업

체육교과에서 제안된 <하나로 수업>이라는 아이디어를 한 번 살펴보자(최의창, 2010). 하나로 수업은 전인교육을 위해서 지덕체의 통합, 또는 지정의 통합을 주장하며, 그것을 위해서 서사적 통합의 이론적 배경을 활용한다. 인성과 창의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 인문적 접근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간주한다. 창의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한 개념적 근거들은 경험의 양식, 실천전통 교육관, 다중지능론, 그리고 덕교육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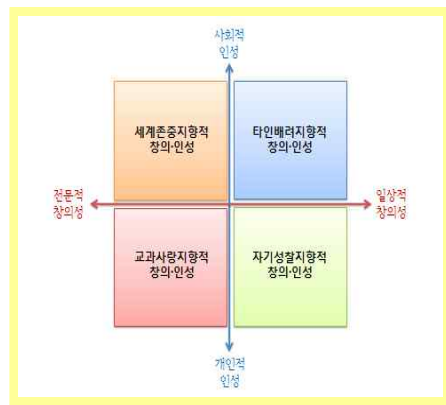
<하나로 수업>은 단일교과내에서 창의인성의 융합적 함양을 도모하려는 한 가지 체계적 노력이다. (하나의 교과목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창의성 따로, 인성 따로가 아니라 창의인성이 하나로 된 상태로 가르치고, 하나로 된 상태로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는 의도에서 하나로 수업이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과의 주차원과 부차원, 주표현양식과 부표현양식, 직접체험활동과 간접체험활동, 직접교수활동과 간접교수활동 등의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되어 하나로 활용된다(하나로 수업은 원래 지덕체가 조화롭게 균형잡힌 전인교육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개발되었다).

하나로 수업의 목표는 4가지다. 이 4가지 목표는 하나로 수업 모형에서 이상적 수준에서 추구하는 전인의 4대 특징(자아성찰, 타인배려, 교과사랑, 세계존중) 각각을 수업의 수준에 맞추어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그리하여 참자기를 찾는 체육이 되도록); 둘째, 하기, 읽기, 쓰기, 듣기, 보기를 하나로(그리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겪는 체육이 되도록); 셋째, 학교 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나로(그리하여 삶의 체육이 되도록); 넷째,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그리하여 모두를 위한 체육이 되도록). 이 4가지 목표는 각각 자아성찰지향적 창의인성, 교과사랑지향적 창의인성, 세계존중지향적 창의인성, 그리고 타인배려지향적 창의인성을 반영한다.⁴⁾ 간단히 말해서, 하나로 수업에 있어서 창의인성교육이란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교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뜻한다.

4)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연설명한다면, 창의인성이 통합적으로 갖는 모습(스타일)에는 적어도 4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창의성과 인성은,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만 포괄적으로, 각각 특성상 전문적 창의성과 일상적 창의성(Big Creativity & Little Creativity), 개인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Personal Character & Social Character)의 차원으로 다시 구분된다. 창의인성은 이 네 가지 차원들의 복합적 조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조처는 이 네 가지 차원들이 만들어내는 창의인성의 4가지 모습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 모습은, 전문적 창의성과 개인적 인성, 전문적 창의성과 사회적 인성, 일상적 창의성과 개인적 인성, 일상적 창의성과 사회적 인성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표현에 의하면, 교과사랑지향적, 세계존중지향적, 자아성찰지향적, 타인배려지향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업의 진행은 <터>와 <패>를 활용한다. 다양한 직간접체험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러 개의 터(학습장소)가 필요하다. 창의성과 인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서 패(학습모듬) 활동이 요청된다. 주차원의 습득을 위하여 주요현양식인 직접체험활동을 제공한다. 부차원의 습득을 위하여 부표현양식인 간접체험활동을 제시한다. 주차원과 부차원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는 직접 교수활동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직접교수활동에 의해 전달되지 못하는 주부차원의 특정 부분들이 잘 전달되도록 간접교수활동에 대하여 의도적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직접체험활동과 직접교수활동은 각 교과별로 다양하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림 1 참조). 그리고 간접체험활동과 간접교수활동을 위해서는 4덕7행도(四德七行道, 인의예지/곡점수편권구문)를 실천하기를 한 가지 원칙으로 제안한다. 교사(와 학생)은 모두 수업에 어진 마음, 멋진 행동, 밝은 표정, 고운 말씨를 활용하며 주교수활동을 펼쳐낸다. 매 단원에 걸쳐 가능한 음악 1곡, 미술 1점, 시 1수, 영화 1편, 책 1권, 경전 1구, 작문 1문을 주학습활동과 함께 체험한다. 주차원의 습득과 함께 부차원의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각 교과를 다채롭게 이해하고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소양을 얻게 된다. 다채로운 체험을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공동학습을 통하여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인성적 소양을 기르게 된다.



교과사랑지향적 창의인성의 모습은 자신이 좋아하는 지식과 체험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세계존중지향적 창의인성의 모습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체험을 활용하여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공헌차원에서 새롭게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아성찰지향적 창의인성의 모습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타인배려지향적 창의인성의 모습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새롭게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네 가지 모습들 각각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창의인성이 함양되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한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함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모습들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 두 가지를 창의인성의 발달, 함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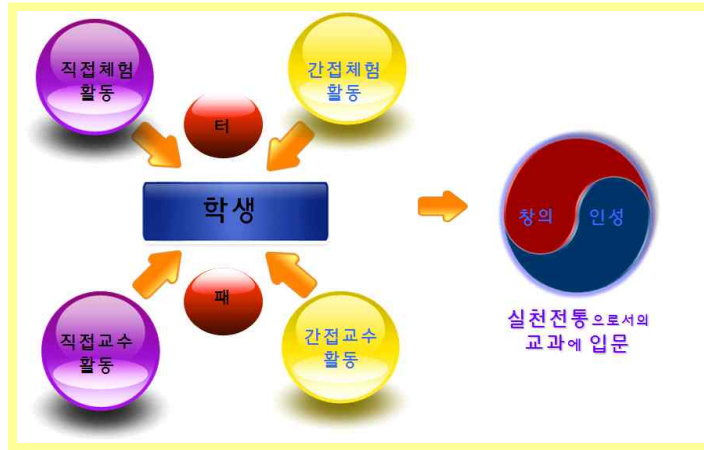


그림 1. 하나로 수업의 구조와 창의인성 융복합교육

간접교수활동의 의의는 창의인성을 학생들에게 교육내용으로 가르치는 것과 함께, 교육방법으로서도 가르친다(teaching creativity and morality creatively and morally)는 것이다. 학생의 창의인성은 교사가 창의적이고 인성적으로 가르칠 경우에 증진될 수 있다. 교육내용으로서의 창의성과 인성은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교육방법으로 가르쳐질 때에만 올바르게 학습된다. 특히, 인성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오랜 시간의 사회화와 습관화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함양된다. 도덕교과에서처럼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수업의 환경과 풍토와 진행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개인적 인성과 사회적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실에서의 도덕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화 과정을 조장한다. 이런 이유로, 교사의 간접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패별 활동과 패에서 맡게 되는 역할(패몹)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각 교과 교사들은 4가지 창의인성 모습의 심화와 확장을 지향하면서 직간접체험활동, 직간접교수활동, 터와패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실제로 매 수업시간의 진행은 <체험하기 → 인지하기 → 이해하기 → 활용하기(사례제공 → 탐색하기 → 자기이해 → 실제적용)>, 또는 <알기 → 찾기 → 만들기 → 써보기(기존 사례 체험 → 주변 사례 발견 → 자기 사례 창작 → 여타 사례 적용)>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다.

우선, 각 교과의 단원들 중에서 적절한 내용에 맞추어 다양한 표현장르(부표현양식)로 표현하여 이해한다. 예를 들어, 수학을 문학, 음악, 체육적으로 표현한 것 등이다. 수학의 주차원이 주표현양식(숫자)으로만 경험되지 않고, 부차원도 다양한 부표현양식을 통하여 체험될 수 있도록 직간접체험활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간접교수활동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그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와 생각을 자극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학, 국어, 영어, 체육, 음악, 가정/기술, 과학 등 각 교과목에서 모두 부차원들이 들어있음을 감지,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내면속에 다양한 소양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각 교과 속에 담겨진 주차원과 부차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제한된, 확장된) 창의성을 키워내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와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을 찾아감으로써 학생 개인의 (개인적, 사회적) 인성이 향상되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⁵⁾

교과와 자신과 타인과 세계에 대해서 (본인의 상태에 비추어) 이전보다 얼마나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는지(다시 말해서, 심화되고 확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업후 학생평가를 위해 간단하게나마 교과별로 기준과 평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로 수업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수준과 취향을 지닌 학생들 각자의 흥미와 능력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을 마련하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얻은 자신감과 일체감은 창의성과 인성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양분 역할을 한다.

실천전통으로서 교과에 입문시켜 학생을 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궁극적 교육목적을 지향하면서, 지적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창의인성을 동시에 함양시키려는 목표는 서사적 통합의 관점에서 개발된 하나로 수업이라는 통합적 수업모형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최의창, 2007).⁶⁾

6. 융복합된 창의인성의 결과, 융복합적 인재의 특징: 스타일

하나로 수업은 여러 가지를 하나로 이루어낸다.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해서는 <교과들의 융합>과 <창의인성의 융합>을 실천해낸다. 먼저, 한 교과의 주표현양식을 중심으로 각 교과들의 특성이 반영된 부표현양식들을 활용함으로써 <교과간의 융합>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낸다. 이러한 형태의 융합이 가장 훌륭한, 또는 완전한 형태의 융합이 아닐 수는 있으나, 교과구분에 따른 수업운영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방식의 융합이라는 점은 그동안 체육교과에서

5) 실천전통으로서의 스포츠가 지닌 준거들(홍은숙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 인간활동, 모종의 일관되고 복잡한 형식, 탁월성의 기준, 내적 가치, 덕, 규칙에 대한 복종, 역사적 전통의 발전, 구성원의 성장의 8가지)을 학습하고 습득하여 내면화함으로써 전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 점을 시간의 제약으로 깊게 다루지 못한다. 스포츠의 맥락에서 실천전통의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이 어떻게 전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적 분석은 최의창(2012) 특히, pp. 9-12 참조.

6) 체육교과에서 실행되고 있는 하나로 수업의 구체적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하나로 수업연구회> 홈페이지 참조(cafe.daum.net/HOPEschool).

행해진 연구들이 뒷받침해준다. 이것은 실천전통에의 입문을 지향하는 교과교육론의 실천적 노력과도 호응하는 방식의 교과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입문을 통해서 실천전통에 담긴 내적 가치들과 탁월성의 기준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과 인성의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의성과 인성은 결국에 책 속이나 머리 속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 가장 폭넓게는 삶 속에서 길러지고 발휘되는 것이다. <터와 패>를 통하여, 그리고 <직간접체험활동과 직간접교수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중심”⁷⁾적인 수업운영을 실행해냄으로써 살아움직이는 창의성과 인성의 숙성과 발현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든다. 창의성을 작게 쪼개낸 세부사고능력들의 조합, 인성을 또 역시 작게 잘라낸 세부심리성향들의 결합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자아, 타인, 교과,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롭고 올바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소양을 하나로 길러주게 된다. 수학을 계산이나 논리로 서만 이해하지 않고, 음악 속에서도, 미술 속에서도, 문학 속에서도, 체육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들며, 그것을 삶 속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안목과 재능을 갖게 만든다.

그것은, 오우크쇼트에 따르면, 학생 각자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며, 이 스타일 속에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의 수준이 녹아들어있게 된다. 지덕체 융복합의 상태가 된 인재는 바로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춘 학생일 것이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 즉 자신의 지덕체 스타일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각 실천전통에의 입문을 통하여 교과교육에서 이뤄내야 하는 융복합 인재양성의 (한 가지)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⁸⁾

누군가 저에게 인내심, 정확성, 간결함, 우아함, 스타일 등의 감각을 어디서 처음 알게 되었는가를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그것을 문학이나 철학적 논쟁이나 기하학의 증명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체조(체육)선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체육교육이라는 말조차 생기기 훨씬 이전이었지만, 그 때 그에게는 체조활동이 하나의 지적 예술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그것을 배운 것은, 그가 입으로 한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인내심과 정확성, 간결함과 우아함과 스타일을 온 몸과 마음에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Oakeshott, 1989, p. 62).

-
- 7) “활동중심”이란 표현은 “지식중심”이란 표현과 대비된다. “수행중심”이란 표현과 의미를 같이 한다. 학습의 내용과 방식이 책 안에 쓰여진 지식을 머리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의 생활과 문화와 삶 속에서 진행되는 벌어지는 과정들의 형태로 체험되고 이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전통 교육관은 창의인성을 함양하는 교과교육에서 명제적 지식중심 교육을 지양하며 “활동중심 창의인성교육”(activity-based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BCCE)을 장려한다.
- 8) 본 논문은 2014. 4. 30. 투고되었고, 2014. 5. 26.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4. 7. 11.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강선보 등 (2008).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 고황경, 김재원 (2013). 중학교 미술과와 수학과와의 융합인재교육(STEAM)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적용연구. *조형교육*, 46, 1-27.
- 유광찬 (2009). *통합교과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유재봉 (2002). *현대교육철학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이시예, 이형철 (2013). 융합인재교육(STEAM)을 적용한 과학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과학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32(1).
- 신차균 (2000).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이념과 실제. *교육철학*, 23, 205-225.
- 서강대학교 창의인성교육 수도권거점센터 (2012).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심화과정*. 서강대학교 창의인성교육거점센터.
-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서울: 쌤앤파커스.
- 김성준 등 (2010). 교과교육에서 창의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최의창 (2007). 중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학문적 접근과 서사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349-376.
- 최의창 (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 (2012). 전인적 선수발달과 인문적 코칭: 교육활동으로서 스포츠코칭의 목적과 방법 재개념화.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25.
- 홍은숙 (2007). *교육의 개념: 실천전통에의 입문으로서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Albers, P., & Harste, J. (2007). The arts, new literacies, and multimodality. *English Education*, 40(1), 6-20.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J. (1965). *Man: A course of study*. Educational Services, inc.
- Cowan, K., & Avers, P. (2007). Semiotic representation: Building complex literacy practices through the arts. *Reading Teacher*, 60(2), 124-137.
- Van Manen, M., & Shuying, L. (2002). The pathic principle of pedagogical languag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8(2), 215-224.
- Eisner, E. (1998). *The kind of schools we need: Personal essays*. New York: Heineman.
- Forgarty, R. (1991). *The mindful school: How to integrate the curricula*. IL: Skylight

Publishing.

- Gardner, H. (2006). *Multiple intelligence: New horizons in theory and practice*. NY: Basic Books.
- Hirst, P. (1993). *Education, knowledge and practices*. R. Barrow and P. White(Eds.). *Beyond liberal education: Essays in honour of P. H. Hirst*(pp. 184-199). London: Routledge.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2nd ed.).Notre Dame, IL: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Oakeshott, M. (1967). *Learning and teaching*. In M. Fuller(Ed.),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Michael Oakeshott on education*(pp. 43-6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iegel, M. (2006). *Rereading the signs: Multimodal transformations in the field of literacy education*. *Language Arts*, 84, 65-77.
- Whitehead, A. (1929).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The Free Press.
- Young M. F. D. (1998).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From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to a critical theory of learning*. London: Falmer.

<Abstract>

Pedagogical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Talents
and an Exemplary Effort in Physical Education

Euichang Choi

There is a strong current in Korean education. It is the current of an integrated talent who are well educated in several areas such as language, science, arts and mathematics. How do we educate such an integrated talent is a very hot issue for the last several years. It has been generally agreed that an integrated talent can be developed through an integrated education. Thus there has been a resurgence of integrated approaches to education. In the process, the theme-centered approach in which traditional subject boundaries are dismissed or disappeared has made a great support. In this study, I examine an alternative to this new orthodoxy. I find the practice view of education and subject area can be a fruitful ground for the alternative approach. It is based on the idea of the single subject-centered integration which a subject such as sport is understood from many subject perspectives. Sport as a practice can be viewed and played from arts, music, science,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Sport is the core content of physical education, and in PE students can do reading, writing, playing, appreciating as well as practicing. This approach can be more realistic in school settings where students and teachers are more accustomed to the subject-oriented learning and teaching. I introduce an example in PE. The model of Hanaro Teaching is an integrated teaching and learning model in which sport are learned through various subject-related experiences.

【KeyWords】 Integrated Teaching, Hanaro Teaching, Practice View, Creativity, Character